Travel_Guam

독자와 함께 떠난 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여행

사진/김주형 기자 · 글/박상현 기자, 백미혜, 김수라(독자)

눈을 뜬 순간, 투명하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만 접했던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바닷물이 바로 앞에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에 피곤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괌이 우리에게 더욱 '황홀한 여행지'였던 이유는 이번이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이다.

내 생애 첫 번째 해외여행 알고 보면 별 것 아니지만, 막상 시도하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해외여행이다. 여권을 만드는 일부터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부치고 티켓을 받는 것, 비행기에서 출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는 것까지 어느 하나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허둥지둥하기 일쑤다.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만큼 흥미롭기도 했다.

지금은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직장 동료인 우리는 바쁜 일상에 묻혀 이국으로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 무심코 '연합 르페르'의 독자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됐다. 2006년부터 대전에 위치한 종합검진센터에서 근무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 가능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야 상담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괌으로의 여행은 출발 전부터 무척이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인터넷을 통해 괌의 사진을 보고 여행 자료를 찾으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돌이켜 보면 여행지에서의 추억보다 떠나기 전의 준비 과정이 더욱 좋았던 것 같다. 괌에서는 일분일초가 아까울 만큼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감정도 컸다.

비행기는 밤에 인천공항을 이륙해 괌에는 한밤중에 도착했다. 까다롭다는 미국에서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나가자 덥고 끈적끈적한 기운이 몰려왔다. 작은 섬인 탓인지, 한국보다 습도가 높았다. 공항에서 숙소인 아웃리거 리조트까지는 자동차로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호텔과 상점, 쇼핑센터의 조명과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야자수가 열대 휴양지에 왔음을 실감케 했다.

솔직히 괌에 오기 전 주위 사람들로부터 "괌은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화려한 역사유적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바다에 대해서만은 환상을 품었다. 특히 대전과 가까운 서

해바라의 물이 그리 맑지 않았기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친절함과 소박함이 묻어 있는 곳 여장을 풀고 맞은 괌에서의 아침, 바다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위에서 내려다본 괌의 바다는 하늘색, 청록색, 파랑색, 남색 등 다양한 빛깔을 뽐냈다. 무엇보다 사위가 탁 트여 있어서 눈을 어디에 두어도 피로하지 않았다. 넓은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거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선 '쇼핑 명소'라고 하는 DFS 갤러리아 괌을 찾았다.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고급 브랜드와 화장품 매장이 많은 것은 백화점과 비슷했지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직원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면 눈인사를 하면서 가볍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러한 친절은 괌 전체에 배어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다가와 기념 사진을 찍어주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행인도 먼저 인사를 했다. 마치 등산을 할 때면 생면부지의 사람도 스스럼없이 격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것처럼 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했다. 그래서 익숙지 않은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던 듯하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조우하는 '스노클링'은 괌에서 가장 재미있는 체험이었다. 갑자기 솟아올라 다이빙 선수처럼 몸을 비틀며 입수하는 돌고래 무리들을 지나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물안경과 숨대롱을 착용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수조에 빠진 듯했다. 물장구를 치다 보면 물고기들이 발에 닿기도 했고, 먹이를 나눠주려 하면 손으로 몰려왔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스노클링 이후에는 열대어를 낚는 낚시에 도전했다. 평소 낚싯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터라 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바다로 던지는 일조차 신기했다. 낚싯대를 천천히 움직여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기분과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묘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샌드 캐슬(Sand Castle)에서의 마술 쇼 관람이었다. 무대와 객석이 붙어 있어서 더욱 박진감이 넘치고 현란하게 느껴졌다. 마술사의 손에 이끌려 마술에 참가했던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사실 괌 여행은 새로움, 그 자체였다. 어떠한 여행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연환경, 사람, 음식, 문화 등이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일정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할 뿐이다.

괌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멋이 있는 여행지이다. 그래서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훗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여행해보고 싶다.

DFS galleria GUAM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인사동 거리를 거닐듯, 괌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DFS 갤러리아 괌을 빼놓지 않고 들른다. 고급 브랜드 제품부터 소소한 기념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갖추고 있고, 쾌적한 바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DFS 갤러리아 괌은 이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태평양에 외로이 떠 있는 섬인 괌에서 DFS 갤러리아는 독립된 공간이다. 피부를 따갑게 하는 햇볕도, 조금만 움직여도 기진맥진하게 하는 더위도, 정신을 사납게 하는 시끄러운 음악도 이곳에는 침투하지 못한다. DFS 갤러리아 괌에서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괌에서 DFS 갤러리아로 가는 길은 매우 쉽다. 어느 호텔에서든 목적지가 'DFS 갤러리아 괌'이라고 밝히면 택시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DFS 갤러리아 괌에 도착해서도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다. 여권을 제시할 필요 없이, 입구에서 만들어주는 카드 하나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 입구에 있는 잭팟 기계에 쇼핑 카드를 갖다 대면 상점 할인 쿠폰이나 무료 식사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쇼핑을 마친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도 탁월하다. 오후 4시 이전에 구입한 물건은 투숙하는 호텔까지 무료로 배달해주고, 양주나 담배, 초콜릿, 육포 등은 '프리 오더(Free Order)'라고 말하면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공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면세품을 받는 곳은 출국장을 나가서 좌측에 있으며, 영수증만 건네주면 된다.

DFS 갤러리아 괌은 양주와 초콜릿, 스포츠웨어, 토속 기념품 등이 준비돼 있는 '데스티네이션 월드(Destination World)',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제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화장품 매장 '뷰티 월드(Beauty World)', 에르메스와 불가리 등의 유명 브랜드와 시계 등을 판매하는 '부티크 갤러리(Boutique Gallery)', 던힐과 폴로, 코치 등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패션 월드(Fashion World)'로 구성돼 있다. 매장 곳곳에는 DFS 갤러리아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이 전시돼 있고, 한국이나 일본의 소매 시장과 비교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려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지난해 여름 이곳에는 쇼핑을 하다 지친 사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칵테일 바 '스와레(Soiree)'가 문을 열었다. 내부가 밝고 화사해서 아이를 동반한 관광객이나 책이나 신문을 읽고 싶은 사람도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다.

한편 DFS 갤러리아 괌은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플래티늄 서비스(Platinum Service)'를 강화하고 있다. 누적 구입 금액이 5000달러 이상, 2만 달러 미만인 플래티늄 멤버에게는 포인트 적립, 신제품 소개 행사 시 초대, 플래티늄 라운지 이용, 개인 차량 서비스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구매액이 2만 달러 이상, 7만5000달러 미만인 프리미어 멤버와 7만5000달러 이상인 프리스티지 멤버에게는 더욱 풍부한 혜택이 돌아간다.

02-732-0799(한국 고객 서비스 센터), www.dfsgalleria.com

Outrigger Guam Resort

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투몬 베이에는 여러 호텔이 경쟁하듯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다. 이중에는 세계적인 명성의 고급 리조트도 있고, 시설은 조금 미흡하지만 요금이 저렴한 숙소도 있다. 그중 아웃리거 괌 리조트는 시설, 서비스, 위치 등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호텔이다.

아웃리거 호텔은 하와이에 28개, 호주에 6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 100여 개의 호텔을 가진 호텔 체인이다. 아웃리거 괌 리조트는 1999년 7월에 개장했으며 앞쪽에는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와 드넓은 모래사장이 있고, 뒤쪽에는 괌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플레저 아일랜드가 자리해 있다. 따라서 아웃리거에 숙박하는 사람들은 섬을 돌아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차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

아웃리거의 객실은 모두 600개로 오션 뷰(Ocean View), 오션 프런트(Ocean Front), 보이저스 클럽(Voyagers Club) 등으로 나뉜다. 오션 뷰는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오션 프런트는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층과 21층에 있는 보이저스 클럽은 단연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또한 보이저스 클럽 전용 라운지에서는 오전에는 뷔페식 아침식사, 오후 5시부터는 칵테일과 안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라운지에는 신문과 잡지, 여행책자가 있어서 실내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다.

리조트 내부에는 해변과 이어져 있는 야외 수영장,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키즈클럽,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만다라 스파 등의 부대시설과 괌의 전통 음식과 퓨전 메뉴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음악을 들으며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뱀부 바(Bambu Bar)가 있다. 보이저스 클럽 객실과 호텔 로비에서는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웃리거 리조트는 한국인 직원을 채용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돕고 있다. 그래서 항공기 시간 때문에 밤늦게 도착한 여행객이 당황하지 않고 호텔에 투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웃리거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웃리거 리조트는 괌에 오하나 베이뷰(Ohana Bayview)와 오하나 오션뷰(Ohana Ocean view) 리조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오하나 베이뷰는 알뜰한 여행을 원하는 실속파 여행자를 위한 숙소이고, 오하나 오션뷰는 장기 투숙자를 위한 장소이다. 두 곳은 아웃리거보다 규모가 작지만 투몬 베이를 내려다볼 수 있고 객실도 깔끔하다. 여행자가 취향에 따라 호텔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오하나 베이뷰와 오하나 오션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아웃리거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www.outriggerguam.co.kr

Pleasure Island

여행의 기쁨이 샘솟는 곳, 플레저 아일랜드

다채로운 시설이 밀집해 있는 플레저 아일랜드(Pleasure Island)는 괌 여행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곳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공연을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DFS 갤러리아 괌, 아웃리거 호텔, 샘 초이스, 샌드 캐슬 등이 길을 따라 들어서 있다. 올 여름에는 아웃렛 매장인 '더 포인트(The Point)'가 개장한다.

샘 초이스(Sam Choy's) 미국의 유명 요리사인 '샘 초이'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으로 하와이에도 동일한 명칭의 레스토랑이 있다. 실내는 해양 수족관을 테마로 장식됐으며 괌의 음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또한 밤에는 플레저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볼 수 있어서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찾으면 좋다.

언더워터 월드(Underwater World) 아쿠아리움처럼 반구형 터널을 지나면서 괌 주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는 수족관이다. 100m에 달하는 터널에서 5000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대한 상어와 가오리가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수족관에는 세계 제2차 대전에 사용됐던 배와 비행기의 잔해가 있다. 매일 오후 2시에는 스쿠버다이버가 물속에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장하며, 오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18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해저 라운지'가 운영된다.

플래닛 할리우드(Planet Hollywood)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다양한 소품이 전시돼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이곳에서는 신작 영화의 예고편과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 플래닛 할리우드는 영화 '도망자' 등을 기획한 케이스 바리쉬와 콘셉트 레스토랑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버트 아르의 만남에서 탄생했다. 그들은 1991년 뉴욕에 첫 번째 레스토랑을 열었으며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점포를 개장했다. 주 메뉴는 샐러드와 피자, 스테이크, 햄버거, 해산물 요리 등이며, 매장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671- 647-7827

샌드 캐슬(Sand Castle)

화려한 아이스 마술 쇼를 선보였던 샌드 캐슬이 '꿈(夢)'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소녀 2명이 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으로 동양인 춤꾼들과 서양인 무희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또한 마술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공연은 저녁식사가 포함된 '디너 공연'과 음료를 제공하는 '칵테일 공연' 등 매일 두 차례 펼쳐진다.

Information
발자국 모양의 섬인 괌은 가족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이다. 비행기로 4시간이면 닿는 가까운 위치와 선 공공에 있는 매혹적인 자연환경, 안전한 거리, 다양한 즐길 거리 등이 많은 여행객을 끌어들

이고 있다. 원주민인 차모로 족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도 맛볼 수 있다.

가는 방법 현재 대한항공이 인천-괌 직항 노선을 주 9회 띄우고 있다. 인천 출발 기준으로 화요일과 토요일에만 2편이 뜨며, 다른 날에는 1편만 운항된다. 매일 운항되는 항공편의 일정은 오후 9시 2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 40분에 괌에 도착하며, 돌아올 때는 오전 3시 20분에 이륙해 오전 6시 55분에 인천 공항에 착륙한다. 대한항공은 여름휴가 기간을 맞이해 8월 22일까지 주 3회 부산-괌 노선을 운영한다. 한편 일본항공이나 전일본공수(ANA)를 이용하면 일본을 거쳐 괌으로 갈 수 있다.

시차, 환전, 팁, 전압 괌은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 환전은 미국 달러로 하면 되며, 괌에서는 호텔과 DFS 갤러리아, 시내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괌에서는 팁이 보편적이어서 호텔, 바,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에게 요금의 10% 정도를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서비스 요금이 포함돼 있다면, 굳이 팁을 건넬 필요가 없다. 전압은 120V, 60Hz이며 '11'자 모양을 한 어댑터가 있어야 한다.

괌의 해양 스포츠 괌에서는 호텔이나 시내 여행사 등을 통해서 해양 스포츠를 예약할 수 있다.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시워커, 잠수함 투어, 낚시, 체험 스쿠버다이빙 등 종류는 대동소이하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80~95달러이다. 최근에는 돌고래를 본 뒤 스노클링이나 낚시를 하는 '마린 크루즈'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여행 계획 짜기 괌관광청 한국사무소는 홈페이지(www.welcometoguam.co.kr)에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는 '트래블 플래너'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14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밤 등 시간대 별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관광은 명소, 놀 거리, 즐길 거리, 쇼핑 등으로 분류돼 있으며, 각각의 활동은 언제 가야 가장 좋은지 나타나 있어 계획을 짜기가 한층 수월하다. 작성을 완료하면 출력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괌 여행의 FAQ

●괌 여행에 미국 비자가 필요한가요? 입국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떠날 여행자라면 미국 비자가 필요 없다. 하지만 15일 이상 체류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괌으로 가는 항공기에서는 승무원들이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와 함께 괌 비자 면제 서류를 나눠준다. 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 기간과 목적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면 무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괌은 연중 더운가요? 괌의 연평균 기온은 27℃로 전형적인 열대 기후이다. 하지만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2℃를 넘거나 최저기온이 21℃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 않아 여행하기에 좋다. 또한 가끔씩 스콜이 내려 열기를 식혀주기도 한다.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하기 쉬운가요? 괌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만, 국내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형 렌터카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업체들도 진출해 있어서 차종과 비용을 비교해보고 차를 빌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괌관광청에서는 한적한 도로와 편리한 주차, 저렴한 기름 값, 다소 불편한 대중교통 등을 이유로 렌터카 여행을 추천하고 있다. 괌에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5마일(약 56㎞)이며 장소에 따라서는 시속 15마일이나 25마일이다.

●괌 가이드북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괌 가이드북은 랜덤하우스코리아에서 발행한 '세계를 간다'와 한길사의 '레츠고(Let's Go)' 시리즈뿐이다. 두 권 모두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것이지만, 레츠고는 2002년 이후 개정판이 나오지 않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괌은 섬이 그다지 크지 않고, 여행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만으로도 충분하다. 괌관광청 한국사무소에서는 100쪽 분량의 가이드북과 신혼부부를 위한 허니문 가이드북, 쇼핑 애호가를 위한 쇼핑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괌관광청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 top

YONHAP